

인공수정용 옹돈의 훈련

- 홍보 부 -

인공수정을 위해 옹돈을 사육할 때 옹돈이 승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옹돈이 의빈대에 올라가고 충분한 양의 정액을 생산하는 완전 사정을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인공수정용 옹돈의 이러한 만족스런 성 행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관리자는 옹돈이 사육하면서 훈련되고 관리되는 상태에 따라서 옹돈의 능력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공수정의 성공을 위해 옹돈의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옹돈으로서의 신체적인 변화는 아직 성숙이 되기 전부터 진행된다. 심지어 자돈기에 다른 암돼지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부족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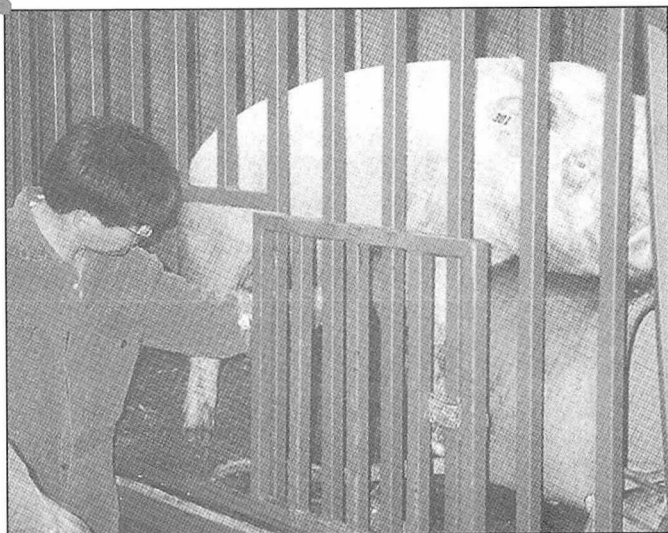
성적인 발달이 더디게 된다. 이성간의 접촉이 제한된 자돈들과 그렇지 않은 자돈들간의 비교에서 이성간의 접촉이 제한된 돼지들은 성돈이 되었을때 교미의욕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성간의 접촉은 반드시 신체접촉을 해야한다. 성장하는 동안 높은 성욕을 나타내는 수돼지는 완전한 촉각 접촉이 가능한 그룹에서 사육되었다.

성장기 동안에 이같은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성돈이 되었을때 비슷한 크기와 신체적인 상태가 비슷한 돼지들간에 성욕은 큰 차이가 난다. 애기의 요점은 어린 수돼지가 다른 개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 종모돈의 상당수는 일정기간 동안 옹돈이 교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한 후에는 정상적인 성행동을 나타냈다.

이러한 훈련방식은 후보돈이 옹돈의 성 행동을 모방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 방식에 대해 견해가 다르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사육하는 기간동안에 사회적인 접촉을 명확하게 실시하게 함으로써 성돈에서 필요한 기능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의 접촉은 성숙속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양돈인들은 성숙한 옹돈이 암돼지 근처에서 사육되거나, 성적 행동의 에너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른 수돼지들 근처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구입한 종돈을 농장에 도착시키고 난



옹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

후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양돈인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구입한 종돈은 처음부터 격리되고 다른 돼지들 하고는 접촉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 돼지들은 7개월 이상을 수퓐지들과 함께 검정 되었으며 그룹 사육방식과 비교해서 그들의 성행동은 돈군에 도입한 이후 급속히 감소된다. 6~7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성 행동은 급속히 발달한다. 성행동을 감퇴시키는 최악의 형태는 처음 교미가 고통스럽거나 놀랍게(공포스럽게)한 경험으로부터 생긴다. 그래서 성적인 경험을 수용하는 후보돈 시절에 간단한 훈련기간을 주도록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정액채취실로 웅돈을 보낼 때 처음 2~3회는 주변 환경과 의빈대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액 채취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슬랏 바닥일 경우 슬랏은 발굽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슬랏 공간이 촘촘해야 한다. 또한 정액채취실은 잘 정리되어 있고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감시활동(supervision)은 웅돈을 적응시킬때 중요한 요소이다. 관리자는 웅돈이 의빈대에 승가하고 페니스를 내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관리는 채취실로 들어가 웅돈이 사정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일단 처음 훈련이 이루어지면 웅돈들은 관리자가 바뀌어도 잘 적응할 수 있다. 만약 후보돈이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상태가 나쁘면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체가 약한 웅돈은 다치기 쉬우며 따라서 성욕도 적어진다. 다리는 찰과상 등을 안 입어야 한다. 정액 채취시 다리와 페니스에 상처를 입으면 정액채취 능력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다.

후보돈에 대한 정액채취 훈련은 최상의 인공수정센타 관리자들도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후보돈에게 처음 할 일은 정액채취에 적응시키기 위해 다른 후보돈들로부터 처음 정액을 채취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는 <표1>에 요약되어 있다. 웅돈이 사정을 일으키기 위해

<표1> 훈련의 빈도에 따른 성욕의 변화

훈련의 빈도	격리후 웅돈의 승가율(%)	성 욕
매주	47	1
주당 2회	59	1.8
매일	71	3.1
1일 2회	93	3.6

<표2> 채취자에 따른 성행동과 정액 생산량에 대한 변화

	승가시간(초)	사정량(%)
채취자1	+12	+41
채취자2	-6	+11
채취자3	-17	+3

서는 다른 돼지들의 정액 채취 장면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다. <표1>의 실험은 이미 인공수정센타에서 사용하는 웅돈의 정액채취 장면을 보여줬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미 사용하는 웅돈들의 정액채취 장면을 보여줬는데 인공수정 기구 회사인 IMV에서 시행하였으며 시험에 사용된 돼지의 연령은 8.5개월~13개월령이고 높은 도체중을 갖은 PIC 요크셔 9번 라인을 사용했다.

이 돼지들은 격리된 상태에서 최소 두번 정액 채취를 했다. 네사람이 각각 5번씩 정액채취를 했는데 이는 정액채취 작업자에 따른 정액량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일주일에 두번 정액채취를 했는데 일요일과 목요일 또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채취 작업을 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2>에 나타내고 있다. 사정된 정액의 평균량은 웅돈들간에도 차이가 나고 똑같은 웅돈에서도 채취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웅돈과 채취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수태 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람에 대한 돼지의 공포심은 정액채취에도 억제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 채취작업자는 인공수정용 웅돈의 행동을 헤아려야만 한다. 그러면 정액채취자와 편안한 친밀성을 가지는 곳에서 웅돈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성행동을 보여 줄 것이다. <Pig-International 99.3> **양돈**